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, 세계 최고 권위 사이클 대회 ‘투르 드 프랑스’ 국내 최초 생중계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‘극한의 레이스’가 찾아온다!

2026. 6. 11.



쿠팡플레이가 '2026 투르 드 프랑스'를 독점 생중계한다.

- 7월 4일(토)부터 26일(일)까지, 총 3,333km 달리는 초인 레이스 국내 최초 독점 생중계
- 보는 것 넘어 직접 달린다! 아마추어 사이클 꿈의 무대 '레탑' VIP 참가 티켓 제공 이벤트 실시
- 쿠팡플레이, 스포츠 중계 라인업 또 한 번 진화 세계 최정상급 스포츠 경험 이어간다

2026. 06. 11. - 쿠팡플레이가 총 3,333km를 달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 '2026 투르 드 프랑스(Le Tour de France)'를 오는 7월 4일(토)부터 독점 생중계한다.

세계 3대 사이클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투르 드 프랑스는 1903년부터 매년 7월마다 프랑스에서 개최된다. 산악·평지·타임트라이얼 등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코스를 아우르며 체력과 전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'지옥의 레이스'로 불린다. 극한의 피로 속에서 찰나의 1초를 줄이기 위한 선수들의 치열한 사투는 매년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숨 막히는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다.

7월 4일(토)부터 26일(일)까지 약 3주간 개최되는 올해 대회에는 23개 팀이 총 거리 3,333km를 질주한다. 특히 지난 6년간 연패와 정상 탈환을 반복하며 세계 사이클계를 양분해 온 타데이 포가차르(슬로베니아)와 요나스 빙에고르(덴마크) 간 역사적인 라이벌 매치가 펼쳐진다. 여기에 현시점 최고의 차세대 유망주로 꼽히는 신인 폴 세익사스(프랑스)가 삼각 구도를 형성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왕좌의 게임을 예고하고 있다.

'투르 드 프랑스'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각 스테이지 내내 펼쳐지는 치열한 '저지 쟁탈전'이다. 종합 우승자를 뜻하는 단 하나의 '옐로 저지'를 비롯해, 그린(스프린트), 폴카 도트(산악), 화이트(신인) 등 부문별 선수를 상징하는 유니폼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, 구간마다 새롭게 탄생하는 저지의 주인공을 추적하는 재미가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전망이다.

쿠팡플레이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무대에 걸맞게, 그 현장을 가장 깊이 있게 전할 국내 중계진과 함께한다. 10년 이상의 사이

클 경력을 바탕으로 '투르 드 프랑스'를 다년간 분석해 온 정석문 캐스터, 팬들 사이 '피기'라는 블로그 닉네임으로도 잘 알려진 국내 대표 사이클 전문가 이경훈 해설위원이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.

이경훈 해설위원은 "포가차르와 빙에고르의 양강 체제 속 사이클 종주국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 신성 세익사스가 어떤 삼각 구도를 만들어낼지가 올해 핵심 포인트"라며 "또한 개인전의 탈을 쓴 철저한 '팀 스포츠'라는 점에 주목해, 팀 에이스 뒤에서 기꺼이 조력자를 자처하는 '도메스티크'들의 숨은 헌신을 따라가다 보면 차원이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로써 쿠팡플레이는 자체 스포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확장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팬들의 눈높이를 또 한 번 높이게 됐다. 국내외 축구는 물론 NBA, NFL, F1 등 세계 최정상급 스포츠를 고품질로 선보여온 쿠팡플레이는 사이클 영역까지 확장하며 독보적인 시청 경험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.

한편, 쿠팡플레이는 이번 최초 생중계를 기념해 '스포츠 패스 클럽' 이벤트를 진행하고, 단 1명에게 인생 최고의 '프리미엄 스포츠 경험'을 선사한다. 당첨자에게는 전 세계 아마추어 라이더들의 꿈의 무대인 '레탑 뒤 투르(L' tape du Tour)' VIP 참가권을 비롯해 프랑스 왕복 항공권 및 숙박, 전문 스태프 상시 동행, 최고급 서포트카, 현지 미식 투어 등이 모두 포함된 7박 9일 소수 정예 풀패키지 투어 기회가 제공된다.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쿠팡플레이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'2026 투르 드 프랑스'의 한국어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, 다시보기 영상은 '스포츠 패스' 가입자라면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시청 가능하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